

농인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 소리 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

장 윤 영*

전북과학대학 복지계열

정 호 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 요 약 》

본 연구는 농인들이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준거 틀 안에서 농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이고 문화적인 주제들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농(청각장애)이라는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 농인의 삶은 무엇인가?”이다.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별 농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있는 증거들에 의해 충분한 지지를 받는, 공통된 주제를 가진 작은 개념과 범주를 구분하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통합된 주제를 발전시켜나갔다. 농인 8명과 수화통역사 7명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소리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라는 공통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에 대한 비정상, 결핍,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역량을 발견하고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농(청각장애), 농문화, 사회문화적 관점, 수화, 질적 연구

* 제1저자(Jinju9999@hanail.net)

** 교신저자(worker@chol.com)

I. 서 론

농인들과 청인들은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농인들에게 ‘소리의 세계’는 매우 강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종종 그들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청인에 비해 자신들을 열등한 하위 계층, 외부인으로 인식하기도 한다(Harris, 1997; Ridgeway, 1993; Higgins, 1980). 또한 농인들이 청인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상과 빈약한 자기 기대, 정신과 신체 건강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Mejstad, Heiling & Svendin, 2008). 농인들에게 나타나는 결핍된 심리사회적 발달, 빈약한 자아상, 부정적 자기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런 깨달음은 종종 초기 학령기 동안 일어나는데 그것은 더 많은 양육과 지지를 해주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외부의 다른 아이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개념은 점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개념으로 변화되어가고, 농아들은 청인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똑똑하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그러한 신념은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져 청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서 농인을 인식하게 한다(Ridgeway, 1993). 이 같은 설명은 농(청각장애)에 대하여 병리학적 인식(Padden & Humphries, 1988)에 기초하며, 농인을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본다는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Rosen, 2003; Lane, 1995). 특히 농 아동에게 발화암시법(cued speech)이나 인공와우이식 등의 방법과 같은 기술을 통해 농을 극복할 수 있는 보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은 수화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듣기 말하기 위주의 구화법을 선호한다(이준우, 2004).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농인에 대한 개입과 연구의 목표는 농인들이 청인 중심의 사회에 적응하고,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상적 전략을 개발하고 치료·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비주류에 속하는 농인들을 주류인 청인 문화에 잘 적응 시키려는 주류중심의 통합을 시도하는 동화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할 수 있다(Castele & Miller, 2003).

그러나 많은 농인들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생애 초기에 청각장애를 얻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 장애 그 자체에 의해서보다 언어적 장벽에서 오는 차이를 가진 문화적·언어적 소수집단의 일부로 간주하고, 모국어로서 수화를 받아들이고 고유한 농문화와 자신을 일체화시켜나간다(Lane, 1990). 이것은 농과 청각의 상실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농을 개념화하고 농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대문자 D(Deaf)를 농문화의 부분인 농인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고, 소문자 d(deaf)는 청각을 잃은 정도인 청각학적 상태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한다(Padden & Humphries, 1988). 농에 대해 사회문화적 관점

에 기반 할 때, 농인들이 그들의 생산적인 삶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직업과 건강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험을 하는 총체적인 산물(Cripps, 2002)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청각장애는 청각 상실 보다는 사회적인 장애로 보며 비병리화하는 것으로 청각 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병리적 관점은 청력 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한다. 농(청각장애)이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현상이므로(Bat-Chava, 2000) 청각장애인은 독특한 그들의 언어와 주체성, 역사, 가치관을 지닌 소수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농문화 연구(Ladd, 2003; Rosen, 2003; Fischer, 2000; Kaplan, 1996)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문화는 농인들이 자신의 자아 개념을 통합된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 지역사회를 지키기를 희망하는 고유한 문화적 형태라 할 수 있다(Simon, 1994). 따라서 농인 사회구성원들은 다른 청인문화와 독특하게 구별되는 농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인 부모에게서 대부분 농인들이 태어나지만, 농인학교, 농인들을 위한 종교기관, 대학 등에서 농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농인들과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된다(Ross & Karchmer, 2004). 이 과정에서 농문화가 농인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한다.

농문화에 대하여 Reagan(1985)은 4가지 특징적 문화적 변수 — 언어(language), 집단 정체성(group identification), 족내혼(endogamy), 조직적 네트워크(organizational network) — 를 중심으로 농인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농문화에 대한 특징적인 4가지 변수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 사항이다. 첫째, 언어로서 수화는 의사소통의 핵심적 수단이며, 교육, 직업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병리적 관점의 연구들은 농인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정신건강과 지적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최상배, 안성우, 2003, Pintner & Patterson, 1917; Pintner, Eisenson & Stanton, 1941, Moores, 1987).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은 청각장애 자체가 장애요인이 아니라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이 사회적 적응을 방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수화의 부정적 공급환경(지상섭, 2007; 김주희, 2005, 최성규, 2005)을 극복하고, 공식적 언어로서 수화를 인정하고 생애사의 적기에 수화를 교육하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박정란, 2004). 둘째, 농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농인 집단에 갖는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Lucas & Valli, 1992). 농 정체성 형성에 농 공동체나 수화에 대한 노출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Holcomb, Holcomb & Holcomb, 1994). 일반 청인 사회와 농인 사회에서 농인들이 겪는 집단 정체감은 자신의 문화만을 편협하게 만드는 몰입 정체성과 농을 문화적 차이로 인식하며,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를 모두 존중하

며,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는 이중 문화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이준우, 2003). 농인들이 건청인 중심의 사회에 기반 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농인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농인들 간의 족내혼(endogamy)이다. 농인에게 '소통'은 가장 중요한 욕구이며,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농인들은 배우자로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농인끼리 결혼하는 것에 반대를 하여도, 또 인공와우이식을 활용한 치료가 있더라도 농 아기가 농문화에 적응하여 잘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한다(Vernon & Andrew, 1990).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족내혼은 농인들에게 있어서 문화 집단의 생존의 수단이며 가족과의 유대관계, 같은 문화권내의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킨다(김영신, 2005). 넷째, 농인사회에서도 모든 지역사회수준에서 집단 응집력과 동료 의식을 유지하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농아사회 정보원, 청각장애의 세계, 한국농아인선교연합회, Deaf TV, 등의 네트워크가 있지만, 농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연구에서 농인 단체를 포함한 대부분 농인들은 공식적 지원망의 원조경험이 없다고 보고된 바(인원교, 2005), 실제적으로 농인들에게 농인 단체에 접근성이 매우 낮고 농인단체와 지역사회 단체들의 지원과 서비스가 부족하며, 대다수의 농인 단체들의 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 결속력과 사회적 대응력은 미약한 상황이다(이정란, 2006).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농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농에 대한 3년 이상의 교육과 수화 자격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농인과 관련된 상담가나 심리치료사,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능력을 가져야만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deafdirect.org.uk). 그러한 과정을 통해 농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농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 조직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 교육과 의료 영역에서 농과 농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인의 삶과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환경 속에서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개입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농인의 삶과 농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농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이다. 예컨대 이준우(2003)는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은 매우 혼란스럽고,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김주희(2005)의 연구에서는 농문화에 빈번한 접촉이 있는 농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6% 정도가 수화가 가능하며, 수화를 통한 서비스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수화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인을 위한 서비스의 주체로 전문 농인 단체와 조직이 해야 한다고 하는 바, 농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체계의 비전문성과 농문화 지원환경의 비보편성이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의 농문화 태도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고 매우 정형화되어 있으며(최성규, 2005), 장애아동 통합교육 교사들의 인식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병리학적인 관점으로 인식하며, 수화실력이 높은 교사들이 농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지상섭, 2007). 이 점에서 농문화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핵심이 수화를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보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농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sensitivity)을 높이는 것이다.

농인과 청인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청인이 설정한 표준에서 이탈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농인들의 문화적 가치 맥락에서 농인의 삶을 이해할 때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인들은 농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수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농정체성이 높으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조용순, 2009), 농정체성과 문화를 뚜렷이 향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농인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구축하려는 성향이 있다(김경진, 2007). 이러한 긍정적 수용에 기초하여 농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최상의 발달을 지원하고 농인들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에 기초해 농을 이해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인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내부자적 관점으로 농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농(청각장애)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농인들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그들의 삶의 실재(reality)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농인들이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준거틀 안에서 농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주제들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농(청각장애)이라는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 농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청각장애)이라는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 “농인의 삶”을 기술한다.
- 둘째, 청인사회와 다른 언어로서 “수화”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구한다.
- 셋째, 농인들의 농인 사회 경험을 무엇인지 탐구한다.
- 넷째, 농인들의 통합적인 삶의 주제를 도출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생애 초기에 청각을 상실한 농인들을 위주로 의도적인 표집을 하였다. 먼저, 농인단체와 수화통역센터의 도움을 얻어 자발적

참여를 허락한 성인 농인 8명을 주요 정보제공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농인들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농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이 높은 수화통역사 7명도 2차적 정보제공자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농인사회에서 장기간 관계를 형성한 수화통역사들을 통해 청인이 갖는 편견과 반응성을 줄일 수 있었다. 총 15명에 대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농 인

구분	성별	연령	청력손실시기/원인	최종학력	직업	비 고
A	남	43	3세 / 열병	고졸	농 통역사	포커스그룹인터뷰
B	남	46	3세 / 열병	대졸	농인교회 목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개별인터뷰
C	남	34	6세 / 열병	대졸	농 통역사	포커스그룹인터뷰
D	남	43	3세 / 열병	대재	농 통역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개별인터뷰
E	여	56	선천성	초중퇴	무 직	개별인터뷰
F	남	50	선천성	초졸	일용직	개별인터뷰
G	여	41	선천성	고졸	무 직	개별인터뷰
H	남	41	6세/ 열병	대졸	농인단체 대표	개별인터뷰

수화통역사

구분	성별	연령	수화통역 경력	최종학력	비 고
I	남	40	17년	대졸	포커스그룹인터뷰
J	여	33	14년	대졸	포커스그룹인터뷰, 개별인터뷰
K	여	30	10년	대졸	포커스그룹인터뷰
L	여	48	25년	대졸	포커스그룹인터뷰, 개별인터뷰
M	여	43	18년	대졸	개별인터뷰
N	여	42	18년	대졸	개별인터뷰
O	여	29	10년	대졸	포커스그룹인터뷰

2.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공통의 문화를 가진 농민의 삶에 대한 실재(reality)의 이해와 상세한 묘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시각들에 기초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조흥식 외, 2005).

2009년 7월 20일부터 2010년 7월 7일까지 약 12개월 동안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속적 비교방법을 기본으로 정보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교적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이 긴 것은 문화공유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의 특성 상 농민의 삶을 밝히는데 청인 연구자 자신의 깊은 문화적 통찰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의 빈도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면접 시간은 회기 당 1~2시간으로 자료가 더 요청될 경우 추가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청각장애(농)에 대한 농민 개인·사회적 인식과 경험, 수화·농문화에 대한 경험과 의미, 결혼과 출산, 농민단체와 사회에 대한 경험,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고, 질문지 내용과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조정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처음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고, 후속으로 보다 더 정교하고 개인적인 반응으로부터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1:1 개별 심층 인터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성인 농민과 농민단체 관련 수화통역사들로 이루어진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문화적 소수 집단에 대한 연구에 적합하며, 연구 초기에 연구 질문을 보다 풍부하게 개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2007). 포커스그룹인터뷰는 개별 면접과 달리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 농민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체계를 활용하여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만들게 했다. 또한 농민들의 삶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농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농민과의 연구는 수화를 통해 자료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연구자가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숙한 것이 좋고, 비언어적 반응에 민감해야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수화통역사의 연구 협조가 매우 중요했으며, 포커스그룹면접과 개별 면접에 수화통역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료 수집의 정확도를 높이고,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의사소통 장애를 최소화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농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시청각 자료, 인터넷 농민 방송들을 가까이 하며, 농민단체와 교회를 찾아가 참여와 관찰을 하였다. 그곳에서 농민의 문화적 주제들에 관한 부차적 자료를 얻었고, 면담 내용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삶에 관한 공통적인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수집된 녹음과 비디오 녹화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고 관찰 현장노트와 정보를 주는 관련 문서와 자료들에 대한 초기의 정리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에게 보인 후,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을 받은 원자료 속에서 반복되는 같은 의미의 개념들을 분류하여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축약 작업을 거쳤고, 축약된 자료는 다시 공통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하위주제와 주제로 통합하였다. 연구자 2명에 의해 각각 따로 만들어진 개념-범주-하위주제-주제가 기록된 발췌록과 원자료를 가지고 농인 단체의 임상전문가 2명과 함께 모여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에 있는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지지를 받는, 공통된 주제를 가진 작은 범주와 개념으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그것을 공통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과정(Wolcott, 1994)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 주제들의 연관성과 적합성을 높여갔다. 이런 분석 절차는 원자료를 작게 구분하고 크게 통합하는 순환적인 반복 과정이었다. 또한 참여자가 사용한 은유와 같은 단어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참여자의 생각을 은유로 전환하여 자료의 축소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축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농인의 삶에 관련된 주제와 유형화된 패턴을 찾기 위한 추상화 작업을 하였다.

하나의 문화공유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와 같이 관찰가능한 행위의 패턴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행위를 위한 패턴 모두를 발견하려고 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본 연구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농아인 행위의 패턴과 그 이면에 있는 의미 구조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처음에 가졌던 연구문제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발전시키면서 농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농인의 삶에 몰입하고 집중하여 청인인 연구자가 농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의 해석과정과 주제의 도출과정으로 진행되었다.

4.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엄격성(Rigor)은 연구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는 정보제공자의 다각화(농인·수화통역사),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개별심층면접·포커스그룹면접·농인들의 일상생활 관찰), 자료수집출처의 다양화(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신문보도, 인터넷 농인 방송)를 통해 신뢰성(credibility)을 높였다. 또한 면접 녹음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보면서 수화로 얻어진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관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수화통역사의 이해와

기술에 귀를 기울였으며, 면접이후 얻어진 정보가 참여자의 의도와 같은지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실성(truth value)을 높였다. 국내외 문헌 비교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보충하였고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공 교수와 농민 단체의 임상전문가로부터 자료의 기술을 통한 주제의 유형과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reproduc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본의 면접 원 자료를 감사 자료로 남겼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는 먼저, 연구자는 자료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소정의 연구 참여비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제인 “농민들의 삶은 무엇인가?” 를 연구하기 위해 약 1년의 시간 동안 15명의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농민들의 삶을 관찰하였다. 농민들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에 대한 정보에 대해 질적 분석과정을 거쳤다.

<표 2> 농인의 삶에 대한 주제

개 념	범 주	하위주제	주제
외부 교류 없이 집에서만 생활함 수화를 쓰는 이상한 사람들	농인 자신 속의 이방인	소리세계의 이방인	소리 세계의 이방인 에서 수화로 소통 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
농인을 부끄러워하는 가족 수화를 배우지 않는 청인 부모와 가족 배우자 청인 부모의 멸시	청인 가족들 속의 이방인		
구화를 강조하는 학교 채워지지 않는 배움의 욕구 혼자서 수업하는 교사	청인 교사·학교의 이방인		
청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청인들의 무시와 냉대 청인 중심의 편의시설	청인 동료·사회의 이방인		
청인 가족들끼리 중대사 결정 청인 가족들에게 이용당함 일방적인 인공와우수술 결정	인격적 소외	자기존재를 위한 소리 없는 절규	
보수 없는 일자리 농인이기에 안 되는 취업 높은 이직률	취업 욕구와 좌절		
농인에 대한 이해 부족 주관적이고 고집스러움 지적 기능이 떨어짐 게으르고 일을 쉽게 그만둠	세상의 편견과 오해		
가슴 뛰는 기쁨과 두려움 농인 자신의 존재감 얻음 의미 있는 관계 맺기	수화를 통해 세상으로 나옴	수화는 농인의 삶 그 자체	
소외를 극복하고 희망을 갖게 해준 곳 농인과의 결혼 선호 농단체를 통해 주체로 존중받음	희망과 용기를 얻음	어머니 품 같은 농인 사회	
‘건청인화’ 하려는 결혼 과정 출산의 불안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청인사회에서 생계 이어가기 청인과 동등한 관계 원함	청인 중심 사회에서 가능성 찾기	그래도 계속 되는 어려움	

그 결과 ‘소리 세계의 이방인’, ‘자기 존재를 위한 소리 없는 절규’, ‘수화는 농인 삶 그 자체’, ‘어머니 품 같은 농 사회’, ‘그래도 계속되는 어려움’ 이라는 5개 하위 주제로 농인의 삶이 해석되었다. 이를 통해 발견한 농(Deaf)이라는 청각장애를 공유하는 농인의 삶에 대한 문화적 주제는 ‘소리 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 였다.

1. 소리 세계의 이방인

“병어리, 귀머거리, 병신, 무시와 냉대 속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농인들은 자신과 가족, 학교, 동료, 사회 속에서 이방인이라는 존재를 경험했다. 그것은 청인 중심의 세계에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농인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소외의 경험이었다.

1) 농인 자신 속의 이방인

“가슴이 뛰고 너무 겁이 났어요. 아. 이상하다, 나도 똑같은 농아인인데..”

연구 참여자 중에 언어습득이전인 3세 이전에 청각을 상실한 경우 소리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대부분 농인들이 건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수화를 통한 언어 강화도 부족했다. 나이가 든 후 수화를 접했을 때 자신은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만났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처럼 느꼈다.

농인과의 교류나 접촉이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농인인 자신도 스스로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이방인이었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을 만났을 때도 같은 농인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방인이었다.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 후 열병으로 인해 청력을 상실한 참여자 H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험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말이 나오지 않는 꿈속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농인 참여자 C는 세상이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자신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2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였다. 이렇게 농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전에는 자신 내부에서도 소외의 경험과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사촌 여동생과 함께 남부 시장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농아인 어른 4명 정도가 수화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빨리 손으로 막.. 농인들끼리 수화를 하면 워낙 빨라서 몰라 보니까.. 가슴이 뛰고 너무 겁이 났어요, 아, 이상하다, 나도 똑같은 농아인 인데 수화를 쓰는 무리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참여자 B, 포커스그룹면접, 수화를 쓰는 이상한 사람들).

2) 청인 가족들 속의 이방인

“엄마가 자신의 죄라고 눈치를 보니까 나를 부끄러워 하니까”

농인 참여자들은 부모나 가족, 친척들로부터 부모의 죄 값이나 전생의 업보라는 말을 들어왔다. 건청인 부모들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농자녀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Meadow, 1980), 그런 태도는 농인에게 자신은 미천한 인간이라는 수치심을 갖게 했다.

설날이나 친척 분들 오실 때 혼자만 대화가 안 되고 혼자 방에서 자고 다른 분들은 다 거실에서 이야기할 때 따 당했다는 느낌 소외당하는 느낌,,,시대에 따라서 농아인들을 보는 입장들이 시각이 조금씩 변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렸다. 가족이 죄를 많이 지어서, 병어리라고 욕도 하고,, 엄마가 자신의 죄라고 눈치를 보고 나를 부끄러워 하니까, 차라리 제가 밖에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아요(참여자 C, 농인을 부끄러워하는 가족).

농인들은 농아학교에 다니면서 농인들을 통해 수화를 익히며 수화를 언어로 습득하게 되지만 청인 부모와 가족들은 농아인들과 손짓, 몸짓, 눈짓에 의존해 의사소통을 하였다. 농아인을 위해 수화를 배우는 부모들은 거의 없었다. 참여자 E는 엄마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서 많이 때렸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 E는 결혼 이후 참여자들은 농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은 만족도가 높았지만 배우자의 청인 부모님들의 멸시와 폄박을 받은 것에 대해 “**시어머니가 청인이여서 농인이 저를 많이 멸시하고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라고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인 참여자 L은 농인 동생을 두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오면 농인 동생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방안에서 못 나오게 하였다. 농인들은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신뢰 관계 형성에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3) 청인 교사·학교에서 이방인

“학생들이 선생님 욕을 해도 몰라요. 수화로 하니까”

농인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님들이 농아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건청인 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농인 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에 기숙형 농학교에 입학했다. 농학교는 독립적인 환경으로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수화를 배우고 동질성을 느끼지만 배움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다. 교사들이 청인이었으며, 청인 교사들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더라도 수화에 능숙하지 못하였다. 수화를 통해 가르치기 보다는 칠판에 글씨를 써서 농인들이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수업을 했으며, 교장선생님은 수화를 금지시키고 구화를 강조하

였다. 농학교 교사들이 수화로 교육을 하지 않으며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수화를 능숙하게 하지 못한 문제를 낳았다(변승일, 2006). 실례로 참여자 A는 학생회를 통해 수화 못하는 사람들 물러가라는 데모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F는 농인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보다 빨래하고 풀 뽑고 밥하고 노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청인부모로부터 수화를 배우지 못한 농인들은 농 학교에 가야 글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학교는 농인들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을 가르치는 학교는 농문화 중심의 수화교육이 아니라 칠판교육 및 구화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농인학생들로 하여금 비주류, 비정상, 이방인으로 느끼게 하였다.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거기가 밥 짓고 그러는 거, 학생들한테 밥하라고 하고 설거지하라고 시키고 빨래시키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거 시키는 시간이 많아서 교장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왜 농아인들 무시하냐고 건청인들하고 상대하려면 나 글 쓰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랑 학교에서 도망쳐서 집으로 왔어요(참여자 E, **채워지지 않은 배움의 욕구**).

그때는 특수교사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일반교사들이 농 학교에 파견됐어요, 수학은 어려워서 곱하기가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수화를 못하니까 칠판에다 가득 써놓고 "알겠습니까?" "이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저는 조금 보청기 끼면 들리고 입모양 보고 선생님 말을 알아들어도 공부는 선생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수화를 해줘도 이해가 어려울 텐데, 학생들이 선생님 욕을 해도 몰라요, 수화로 하니까(참여자 H, **혼자서 수업하는 교사**)

4) 청인 동료·사회속의 이방인

“퇴근하고 건청인들끼리만 모여요. 나는 끼워주지도 않아요.”

청각장애인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만 있을 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은 것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결과를 보더라도(김미옥, 2002), 우리 사회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들리지 않음으로 인한 소외감을 다른 장애와 못지않은 어려움이라고 호소하였다.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들을 수 없고 사회 곳곳이 불편한 것들로 가득했고, 의사소통의 한계는 동료와 사회 속에서 관계의 단절과 생활의 제약으로 이어졌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청인들하고 필담이나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고, 그때부터 삶의 역경들, 어려운 고난들이 시작된 거죠. 필담을 글을 써야 건청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잘 안되었어요. 건청인들이 농아인들을 무시해요. 퇴근하고 건청인들끼리만 모여요. 나는 끼워주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동료이지만 속은 정말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이고 이질적인 사람이란 걸 느끼죠. 사회도 변했다고 하지만 속은 차별이 심해요(참여자 H, 청인들의 무시와 냉대).

특히 농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매우 부족해요. 지금이야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은행가서도 은행직원에게 자기 통장을 주고도 내 통장을 가서 결재하고 올 때까지 고개를 내밀고 아주 깊숙히 들여다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통장에 하트 모양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그거 보고 농인들이 자기 통장인 줄 알 수 있게. 또 공동터미널 같은 데 사람들 많은데 가면 화장실 가서 일보기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농인들은 화장실 가서 문에 한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푹! 푹! 노크 하면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손을 대고 있으면 그걸 손으로 느끼려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절대로 안 좋아요. 그냥 어디를 지나칠지 모르니까요. 지금이야 지하철에 전광판 나오지만 이런 시골 같은 데는 버스에 소리로 안내만 해주지 그런 거 없어요. 자동차 소리 못 듣고 사고 날 때도 많다(참여자 A, 포커스그룹면접, 청인중심의 편의시설).

2. 자기 존재를 위한 소리 없는 절규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결정과 선택도 할 수 없는 가엾고 불쌍한 무지렁이 존재였어요”

농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병어리라고 놀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천대해도 견디어낼 수 있었다. 그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청력의 상실이 자기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1) 인격적 소외

“언니랑 의사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와우수술을 결정했어요.

내 말은 안 듣고 내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농인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자신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청인 부모에게 있거나 청인 가족에게 있었다.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농인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에는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인 부모의 바램으로 수화를 배우러 가고 싶다는 농인들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아서 농아학교의 입학이 늦어진 경험도 있었다. 참여자 F에 따르

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농인이라서 속기 쉽다면서 못 가게 했다. 농인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결정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참여자 H의 가족들은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관심이 있었고, 농인이 모아놓은 재산도 가족 명의로 돌렸을 경우 나중에 농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한 심정이었고 아무런 자기결정권도 없는 무지랭이 존재였다.

농인 참여자 G의 경우 농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청인 가족들은 부모인 농인 참여자의 거부 표시에도 불구하고 농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하였다. 인공와우이식이 청각재활의 확신과 소리 세계에 대한 열망이 어우러져 농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병통치를 얻은 것처럼(김병하, 2007) 인식하고 있는 의사와 청인가족들은 참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자녀가 겪을 앞으로의 일들로 좀 더 신중한 선택의 기회를 농인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다.

둘째 아들이 농아인데요, 인공와우이식수술 결정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부모이고 그리고 제가 농아인 이기 때문에 우리 농인 아이가 수술을 했을 때 농아인은 농아인 입장을 알잖아요, 근데 언니(건청인)하고 의사하고 서로 얘기해서 아들을 수술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수술하게 됐어요, 건청인인 언니 말만 듣고 수술을 했어요, 부모가 건청인이라면 수술하고 훈련을 많이 시킬 수 있지만 제가 농인이니까 훈련을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수술해도 효과 못 본 사람이 너무 많고, 부작용이 많고, 수화를 잘 못 배우게 되니까요, 언니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내 말은 안 듣고 내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못했다(참여자 G, **일방적인 인공와우수술 결정**).

2) 취업 욕구와 좌절

“건청인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농인이니까 무조건 안 된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직업을 통하여 재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사회 참여, 기회 균등, 생활보장의 터전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하여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이항목, 2000). 농인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의 기회가 매우 적으며, 직업 상담이나 지원을 해주는 곳도 형식적이어서 실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도제처럼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였지만 농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한정되어 있어서 석공일이나 건물해체작업 같은 막 노동일을 많이 하였다. 그것도 기술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교통비로 5만원 받은 것이 전부였다(참여자 H). 여성 농인들은 남의 집의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의 강도가 높지만 보수는 적어 힘들었다. 청각

장애인들은 건청인과 비교하여 작업지시를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 스위치가 내려져 팔을 다친 경우도 있었는데 건청인이 스위치를 내린다고 하였는데 농인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된 것이다(참여자 A). 농인들이 직장 이직률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것은 농인 복지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참여자들의 삶에서도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현실, 부업이더라도 직종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이상룡, 1997). 청인이 일을 그만두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인이 그만두면 농인이라서 쉽게 그만둔다는 편견이 있었다. 성인이 된 농인이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는 좌절되었다.

17살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때 부모님에게 불만을 크게 토로했어요, 그 때 동네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 하러 서울로 갔는데, 자기만 시골에 혼자 남아있어야 되고 근처에 공장에 가서 일했죠, 농인이라고 힘든 일만 시키고 나는 건청인보다 아니, 건청인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농인이니까 무조건 안된대요, 심부름만 시키고 정말 속상했어요, 식모살이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께 왜 나를 농아로 남아줬냐고 많이 원망했어요(참여자 E, 농인이기에 안 되는 취업).

3) 세상의 편견과 오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집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병어리, 귀머거리, 병신 등 욕과 조롱, 사지육신 멸칭해서 장애 축에도 못 낀다,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다. 지적기능이 떨어진다. 청인을 믿지 못 한다” 등이 농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다. 농인 참여자들과 청인 참여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농에 대한 무지와 농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청인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라고 하였다. 말을 못하는 것을 알면 어린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병어리’ 라고 놀리고,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건청인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지금이니까 청각, 언어장애인, 농아인 어쩌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병어리 귀머거리 병신 뭐 아주 하찮게 대했었죠, 나무막대기로 찌르고 돌을 던져서 맞기도 하고 또 농인들은 안 들리니까 수화통역사가 있는 앞에서도 반말로 이야기해요, 어차피 안 들리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 하는 농인들의 목소리를 통역해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농인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귀는 안 들리고 말은 혀? 아니면 말은 못하고 귀는 들린다(참여자 K, 포커스그룹면접, 농인에 대한 이해 부족).

농인들에 대한 또 하나의 오래된 편견은 ‘농인은 고집불통이다’는 것이다.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전문가들도 간혹 농인에 대한 특성을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Meadow, 1980). 그러나 그것은 환경적 맥락 안에서 행동을 관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환경적 영향 안에서 농 개인과 농인 집단의 관점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건청인들이 농아인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J). 농인과 청인 사이에 대화는 그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고 정보와 경험의 경계가 청인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농인이 못 알아듣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면 그것이 곧 고집이고 이기적인 특성으로 보여졌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집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보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농인의 관점에서 경험이 없고 정보가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거죠, 또 전달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농아인들이 경험했던 한계를 안 벗어나요, 그 간접경험이라 그러는데 농인들은 그게 부족하니까요(참여자 M, **주관적이고 고집이 셴**).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도 편견이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늦은 나이에 갔으며 어린 시절에 언어적 자극과 환경적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같은 고졸이여도 농인들은 건청인들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참여자 K의 경험을 밝혔는데 청인 부모에게 언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결국은 의사소통의 문제, 경험적인 학습의 기회와 환경과의 상화작용의 결핍이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3. 수화는 농인의 삶 그 자체

“수화가 없으면 내 인생도 없어요. 수화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은 한국말 왜 하나 라는 질문과 같아요.”

농인들은 수화를 잘 모르고 몸짓으로만 대화하며 집에서만 지내다가 농인학교에 가서 수화를 처음 접했을 때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참여자, C). 농인이 나 혼자 아니라는 기쁨이었으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농인학교에서 수화를 배우면서 비로소 의미 있는 관계를 얻기 시작했다. 농인 참여자들은 수화를 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느꼈다. 그 이유는 수화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화를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만 주로 있었고 세상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교육의 기회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대인관계도 정보의 획득도 거의 없는 진공상태였다. 수화를 알게 되면서 농아학교에서 같은 농인들을 만나게 되고 교육을 받고 경험의 기회를 넓혀가면서 세상에 대해 배워갔다. 비록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수화로 소통이 가능하지 않지만 수화를 하는 농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농인에게는 사회였다. 농인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 꿈을 꾸게 해준 것들은 수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비장애인들한테는 소리가 어떤 의미냐고 안 물어 보는데, 수화의 의미를 묻는 것은 한국말 왜 하나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듯이 농인이니까 우리는 수화를 해요,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밤을 새워서 수화로 이야기하는 농인 친구들은 내게 의미 있는 관계를 알게 해주었어요(참여자 B, 포커스그룹면접, 의미 있는 관계 맺기).

4. 어머니의 품 같은 농인 사회 속에서

“세상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안아준 사람들이 있었다.”

1) 희망과 용기를 얻음.

“친구들은 농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왜곡된 언어, 짐승 같은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없어 눈치를 채지 못하는 듯한 모습인 농인이 청력이 있는 동료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배척되고 놀림을 당한다(Scheetz, 1993). 참여자들이 부모에 의해 일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청인들이 많은 교회나 친척들 모임, 청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과 사회생활 곳곳에서 ‘놀림’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주로 구어의 상황에서 소외감, 열등감,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러나 농학교에 입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농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농인과의 만남은 행복이었다. 농인 동료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갔으며 시간이 아쉬워 밤을 지새워 이야기꽃을 피웠다. 농인을 만나면 무엇이 좋은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참여자 D와 참여자 G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 농인이라는 그 자체가 좋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농인들은 소리 대신 보는 시각에 기초한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가진다. 이런 농문화는 농학교에서

시작된다. 청력손실정도와 무관하게 단지 농아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 사회에 동화한다(이준우, 2003). 참여자들은 농아인 학교에서 농인들과 함께 자고 공부하고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이었기 때문에 농아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접한 농인사회는 농학교였다. 농학교는 농아인들에게 농인사회로의 첫 안내지였고 농인으로 정체성을 알게 해준 곳이었다. 청인가족들과 청인 사회속에서 소외받고 초라한 존재라고 느꼈던 아픈 경험들을 극복하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있는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준 소통의 주체와 관계를 알게 해준 곳이었다.

농인과 건청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일도 있지만 보면 행복하다는 것보다 의사소통이 안돼서 오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때문에 저는 농인과 농인 결혼이 나은 거 같아요, 부부관계 할 때 건청인들은 대부분 불을 끄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인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말을 하니 불을 켜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작지만 건청인하고 농인하고 결혼하면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청인 배우자가 어느 정도 수화를 잘하더라도 마음속까지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요, 의사소통을 떠나서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이죠(참여자 A, **농인과의 결혼 선호**),

농인들의 다수(86% ~ 90%)가 농인 배우자를 선택한다(Vernon & Andrew, 1990). 그 이유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청인은 농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농인 참여자들은 모두 농인 배우자를 선호하였는데 그들에게 '소통'은 가장 중요한 욕구였다. 농인들에게 수화로 소통하는 농인들은 농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용하게 된다. 농인들에게 농문화는 서로를 믿고 있고 안아주는 엄마 품 같은 공동체였다. 농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농 학교, 농인교회, 농인단체는 농인들에게 집보다 더 소중한 곳이었다. 청인들과 소통의 단절을 벗어나 농문화 속에서 소통이 주체가 되어갔다. 농인들과 만나면 자신의 삶에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 무엇이든 농인들과 함께 있으면 비굴하지 않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받았다. 만약 농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교체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다면 수화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바보가 되고 치매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참여자 E는 농인들에게 농인들이 모임과 강한 결속이 필요하며 만약 농인들하고 교체하지 못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자신은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내가 불교를 가지고 있지만 농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농인 교회에 가요, 요즘은 농아인 협회가 생겨서 목사님이 예전보다 좀 외롭죠,(웃음)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자막이 안 나오니까 컴퓨터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교회로 모여요, 가면 농인 친구들 만나니까요, 농인이라는 것이 편하니까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거죠(참여자 D, **농단체를 통해 주체로 존중받음**),

5. 그래도 계속되는 어려움

“솔직히 말해서 농아인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차별이 심해요”

많은 농인들이 시각장애나 지체장애인처럼 그들 스스로를 신체적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Lane, 1990), 수화를 언어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며 농 프라이드를 가지고 농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나가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농인들은 건청인 중심의 사회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태도상의 장애로 인해 교육, 자녀 출산과 양육, 취직,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인 참여자들에게 농정체성을 가지고 농인 사회를 형성하여 나가는 과정도 청인 가족들은 농인을 ‘정상화’ 혹은 ‘건청인화’ (이정란, 2006)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인들은 서로를 이해해주는 농인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하였지만 청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청인 가족들은 농(청각장애)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결혼 후 청각장애가 유전될 것을 가장 우려하였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여겼다.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자살까지 시도하자 가족들은 농인 배우자를 허락하였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처음으로 건청인 가족들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건청인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게 됐다(참여자 H).

농아는 안 돼, 너도 농아인데 또 농인이라 결혼을 하나, 애기도 농인이면 어떡할거냐고.. 지금 결혼한 부인을 집에 데려갔더니 이모랑 엄마가 인사도 안 받고 나가라고 했어요, 세 번이나 갔는데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려야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약을 마신 다음 여섯 시간 후에 가족들이 발견하고 막 거품 쏟고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 갔어요(참여자 H, **‘건청인화’ 하려는 결혼과정**).

농인 가족의 삶에서 가장 애뜻한 부분은 자녀에 대한 것들이었다. 참여자들이 만약 청인이 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나의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 ‘엄마’ 라고 부르는 소리” 였다. 애뜻한 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자녀 출산과 양육과정이었다. 농아기를 출산하게 될까봐 걱정하였다. 자신이 농인인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지만 살아오면서 사회적 제약과 차별, 불이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농인은 나로 끝나야한다. 다시 낳아서 자녀가 고생할 텐데 다시 내가 겪었던 좌절을 밟게 되고 반복될 텐데.. 고생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참여자 F는 이야기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농인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농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건강한 농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오히려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지적 장애까지 겹쳐진 경우, 농인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보살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참여자 G는 첫 아이가 농아기여서 절망을 하였다. 청각장애일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까지 겹쳐서 그런 아이를 출산한 참여자 G는 정말 죽고 싶어 했고 청인 가족들은 중복장애가 있는 농자녀들을 농부부에게서 떼어내고 고립된 시설에 입소시켜 슬픔은 더 컸다. 농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농인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차별과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하였지만 농인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의 진심어린 교육으로 참여자 G는 삶의 가능성을 찾았다.

농자녀가 아니라 청인 자녀를 낳아도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가 울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돌봐줄 청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농인 부부는 아이들의 언어 강화를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청인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경우 아이의 언어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시어머니나 친척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수화통역사인 참여자 K는 부모 두 분 모두 농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잘 알지 못했고, 자신도 부모님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의 소리를 대신해 사회적인 제약을 감당하면서 농인 부모의 지원군이 되었다. 참여자 K는 농인들은 여러 면에서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글을 아예 못 읽고 쓰는 문맹 농아부터 좋은 대학을 나와 건청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농아들까지 격차가 큰 이유는 농인들의 교육의 기회의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농인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농인 부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인 참여자들은 문장력이 부족하고, 사회의 상식적인 부분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의 건청인 교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서 교사와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5년 동안 수화통역사인 연구 참여자 L은 농인 부모를 대신해 청인 자녀의 교사를 만나는 일을 해왔다. 청인 자녀들이 학교 부적응 문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경우 참여자 L이 학교에 방문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밖에 못 키웁니까’라며 교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청인 자녀의 수화정도가 높아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나 완전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에서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사춘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나타냈다. 농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이나 교육적 부담보다는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담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부담이 높았다(염동문, 허명자, 이한우, 2004).

성인 농인부모들은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경우도 많으며 농촌의 농인들은 문맹률도 높다. 참여자 M은 20년 넘게 농인교회에서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복지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농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의 농인들은 야학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참여자 M은 그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어 했다. 특히 청인 자녀와 의사소통 뿐 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 차원에서 언어적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청인 사회에서 가능성을 찾기 바랬다.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은 고된 경험이었다. 참여자 E는 가르쳐주면 일을 잘 할 자신도 있고, 농인들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능이 더 발달해있어서 손으로 하는 것들은 더 민첩하게 잘하고 눈치도 빠르다고 하였는데, 농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때 마다 “정말 청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참여자 E는 어린 시절 촌락공동체에서는 차별이 없었다고 느꼈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청인들이 농인들을 이해해준다면 청인들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인들에게 일에 대한 욕구는 청인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능성을 찾는 일이었고 청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바람이었다.

많이 놀았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농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농인에 대한 인식들이 사회에서 좀 거부반응을 일으킬 정도였고, 인식이 좀 괜찮은 사람도 수화를 아는 청인들도 수화통역사도 없었고요, 농인들은 무식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니까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참여자 E, **청인 사회에서 생계 이어가기**).

솔직히 말을 하자면, 농아인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차별이 심해요, 나는 청각장애인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인간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소통을 원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는 모두들 친했어요, 그때는 차별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때 우리 동네를 그대로 지금 사회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참여자 G, **청인과 동등한 관계 원함**).

IV. 결 론

다수인 정상인(건청인)의 입장을 떠나서 농문화와 농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Rothman, 1987). 본 연구는 농(Deaf)이라는 문화를 공유하는 소수 집단으로써 농을 이해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기초하여

농인의 공통적인 삶의 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농인 8명, 농인단체 실무자이자 수화통역사 7명과의 심층적 면접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질적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농인들의 공통된 삶의 주제는 『소리 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였다. 건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농인은 소외감,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존재의 고립된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수화를 사용하는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이고 자기결정권 있는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주제는 5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해석되었다.

농인들은 자신과 가족, 학교, 직장동료, 사회에서 「소리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청인 중심 사회에서 농인들은 열등감과 죄책감, 수치심과 이질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분리되는 경험이었고, 의사소통 단절이라는 물리적 소외에서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소외로 확대되는 것이었다.

농인들에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분리, 소외와 단절의 경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농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청력의 상실이 곧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건청인 사회에서 농인들은 가없고 불쌍해서 동정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의 삶에서, 자녀의 삶에서, 취업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오래된 편견 속에서 농인들은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삶을 경험하였다. 청각장애라는 물리적인 계약을 원조하는 청인들과의 불평등한 관계, 일방적인 결정은 농인들에게 인격적인 소외의 경험이었다. 농인들에게 자기존재에 대한 인정은 ‘농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절규」였다.

농인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소리 높여 호소해도 그 절규는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농인들의 마음은 수화를 접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전달될 수 있었다. 수화는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목소리이며 「농인의 삶 그 자체」였다.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농인들에게 구화와 필담은 완벽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으며, 볼 수 있는 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소리의 세계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농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수화를 통해 농인들은 비로소 의미 있는 소리와 의미 있는 관계를 얻기 시작했고 자신을 인정하고 꿈꾸게 해주는 자신과 같은 농인 사회를 만나게 되었다.

세상과 연결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 준 수화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농인들의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농인 사회는 소외감, 열등감, 의사소통 수단의 박탈당한 것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농인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고 농인과의 결혼을 통해 농문화를 형성해나갔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농인사회」— 농학교, 농인 교회, 농인 단체 —는 자신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농인들은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며, 농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나가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여전히 청인 중심의 사회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농인들은 농인 사회에서는 행복과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건청인화하려는 가족들의 열망이 아픔과 상처가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심리사회적인 부담이 높았다. 농인 부부 가족을 형성하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일은 농인이라는 이유로 기회의 문이 좁았다. 계속되는 차별과 제약이 있는 소리의 세계 안에서 지원군이 된 청인 자녀와 농인 단체를 통해 농인은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관점은 병리적 관점 보다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를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농인의 삶의 통합적인 주제는 “소리 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 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였고, 이에 대한 최종적 함의가 농인과 청인간의 수용과 톨레랑스였다. 농인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적응, 갈등의 문제는 늘 소통의 수단인 ‘수화’가 내재되어 있었다.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집단으로서 농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농인을 사회 전체가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농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인들이 기꺼이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감내하고 배려하는 톨레랑스가 합의되길 열망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 또는 농문화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병리적 관점 보다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독특한 생활양식을 수용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강점중심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의 핵심은 농인들이 자기결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구화와 수화의 선택, 인공와우수술의 결정, 결혼, 자녀교육 등 생애사의 중요한 결정이 전문가와 건청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농인 개인의 탄력성(resilience)을 감소시키고 농인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에 방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나를 끼워주지 않는 동료, 차별이 심한 사회(참여자 H, A)”가 농인들을 또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길 원했다. 이제 의사소통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회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인식하는 것이 농인이 가족, 학교, 이웃, 지역사회 등의 체계에서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농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농인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에는 집에만 있어서 세상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교육기회도.. 다양한 경험도.. 대인관계도.. 정보의 획득도 거의 없는 진공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농민들의 교육 수준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조용순, 200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볼 때, 농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망은 중요한 부분이었고,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자녀의 개별적 수준과 욕구에 맞는 교육 체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기관과 가정, 학교의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성인 농민을 위한 수화로의 교육 과정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 가족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족들이 생각하는 농민의 의미는 “감추고 싶은 존재, 죄의 결과, 부끄러움(참여자 C)” 이지만 농민에 있어 가족의 의미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존재, 때리는 존재(참여자 E), 멸시와 폄박하는 존재(참여자 C), 구속하는 존재(참여자 H)” 로 보여 졌다. 당사자 간의 갈등은 비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Here and Now)” 의 입장에서 가족지원개입이 필요하다. 자녀양육의 문제, 청년부모와 농민이 경험하는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 부모가 농민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녀양육, 의사소통 및 언어지도, 경제적인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넷째, 농민들의 직업 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직업 활동 지원은 “형식적” 이다 는 것이다. 취업을 했더라도 교통비 정도 받고(참여자 H), 가정부, 단순노무직 등 보수가 적은 곳에서 일하고(참여자 E), 의사소통의 문제로 작업 상황에서 상해를 입거나 건청인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농민의 직업선택, 훈련, 배치, 사후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원과 근로여건이 미비한 결과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 직업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증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직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농민 개인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민들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G는 이렇게 언급 했다. “농아인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차별이 심해요. 동등한 관계에서 소통을 원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친했어요. 차별을 못 느꼈어요. 그때 우리 동네를 그대로 지금 사회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차별을 못 느낄 정도의 친구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농민들을 위한 네트워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원형을 향하여 각 네트워크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농민단체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속감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화통역사와 농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질적 연구로서 농민들의 전체적인 삶을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거환경, 소득정보, 가족생활에 관한 사전적 정보를 인지하고 진행되어졌다 할

지라도 농인 개개인 생활의 현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첫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수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화는 농인에 있어 의사소통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즉, 수화는 농인의 삶 전체이며 존재감을 확인하는 도구였다. 그러므로 농인과 건청인, 농인 중에서도 수화활용의 여부나 능력에 따라 수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건청인들이 인지하는 수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농인 가족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 연구함으로써 농인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경진 (2007).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49-260.
-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김병하 (2007). 한국농교육의 정체성 위기 현상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65-489.
- 김영신 (2005). 농문화를 소재로 한 동화가 농학생의 농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주희 (2005). 사회복지사의 농문화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대한질적연구간학회 (2007). **질적 연구로서 포커스 그룹**. Morgan, D.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서울: 군자출판사.
- 박정란 (2004). 수화사용수준이 농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변승일 (2006). 한국농아인협회장인터뷰 함께 걸음 2006. 3-4월호, 32-35.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염동문, 허명자, 이한우 (2004).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2), 357-380.
- 이상룡 (1997). 청각장애인의 취업적응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석사학위 논문,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정란 (2006). 농아인이 경험하는 생활 제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준우 (2003). 한국 농청소년의 농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준우 (2004). **농인과 수화**. 서울: 인간과 복지 출판부.

- 이항목 (2000). 청각장애인 직업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인원교 (2005).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농아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 조용순 (2009). 농인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Crewell, J.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asech design*. 서울: 학지사 출판부.
- 지상섭 (2007). 농문화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최상배, 안성우 (2003). **한국 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최성규 (2005).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종단적 태도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57-74.
- Bat-Chava, Y. (2000). Diversity of deaf identiti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5(5), 420-428.
- Castele, S.,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 Y.: Guilford Press.
- Cripps, J. (2002). Deaf culture. from <http://www.ccsdeaf.com/culture.html>.
- Fischer, L. C. (2000).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s who are deaf: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State University.
- Harris, J. (1997). *Deafness and the Hearing*. Birmingham. venture press.
- Higgins, P. C. (1980). *Outsiders in a Hearing world: A Sociology of Deafness*. Beverly Hills. CA: Sage.
- Holcomb, R., Holcomb, S., & Holcomb, T. (1994). *Deaf culture our way*. San Diego: Dawn Sign Press.
- Kaplan, H. (1996). The nature of deaf culture: implications for speech and hearing professionals. *Journal of the Academy of Rehabilitative Audiology*, 29, 71-84.
- Ladd, P. (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 hood. *Disability & Society*, 18(7), 971-979.
- Lane, H. (1990). Cultural and infirmity models of Deaf Americans. *Journal of the American Rehabilitation Association*, 28, 11-26.
- Lane, H. (1995). Constructions of deafness. *Disability & Society*, 10, 171-190.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Lucas, C., & Valli, C. (1992). *Language contact in the deaf community*. San Diego: Academic press.
- Meadow, K. P. (1980). *Deafness and child develop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jstad, L., Heiling, K., & Svendin, D. (2008). Mental health and self-image among deaf and hard of hearing childre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5.

- Moore, D. F. (1987).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Padden, C., & Humphries, T. (1988).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intner, R., & Patterson, D. (1917). A comparison of deaf and hearing children in visual memory span for digi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2), 76-88.
- Pintner, R., Eisenson, J., & Stanton, M. (1941). *The psychology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New York: Crofts & Company.
- Reagan, T. (1985). The Deaf as a linguistic minority: Educational consideration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5, 265-277
- Ridgeway, S. M. (1993). Abuse and Deaf Children: Some Factors to Consider. *Child Abuse Review*, 2, 166-173.
- Rosen, R. S. (2003). Jargons for deafness as institutional constructions of the deaf body. *Disability & Society*, 18, 921-934.
- Ross, M., & Michael, A. K., (2004) Chasing the mythical 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 Rothman, J. (1987). Community theory and research, In A. Minahan (Ed-in-Chief),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1, 308-316).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Scheetz, N. A. (1993). *Orientation to deafnes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imon, J. H. (1994). *An ethnographic study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education* (American sign language, deaf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 Vernon, M., & Andrews, J. F. (1990). *The psychology of deafness: Understanding deaf and guard of hearing people*. White Plains, NY: Longman.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 Internet leaflet. So you want to work with deaf people. <http://www.deafdirect.org.uk/>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of the deaf
as the minority group

Jang, Yoon Young

Jeonbuk Science College

Jung, Ho Young

Jeonb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omprehensive and cultural themes on the life of the deaf in the frame of sovereign beings by recognizing and sharing their common language and culture. The concrete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life of the deaf as a member of minority group?”

The data was gather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deaf, and the cultural themes was developed by categorizing small concepts which had common themes.

The cultural theme is finding the changeability “from the strangers in sound world to sovereign people as minority groups those who communicate with sign language” through analysis on data collected from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15 members(the deafs 8, sign language interpreters 7).

On this result basis,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work interventions aside from the pathological perspective by which the deaf have been shown to abnormal, deficit, low intellectual and so on.

Key Words

: Deaf, Deaf culture, sociocultural perspective, sign Language, qual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 2010. 07. 24 심사 시작: 2010. 11. 10 게재 확정: 2010. 12. 15

